

한미동맹 60주년 스미소니언 만찬장에 이이남 작품 걸린다

〈담양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신 묵죽도’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장에 담양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43)씨의 작품 4점이 전시된다. 8일 오전 7시(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미술관 코넬 코트 야드(Kogod Courtyard)에서 열리는 이날 만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전 참전 용사, 주한미군, 한·미 정·재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경희, 정몽구 회장 등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한국 미술을 세계에 소개하는 첫 번째 행사라는 점과 이씨의 작품이 한·미 인사들에게 선보

오늘 ‘신 묵죽도’ ‘신 세한도’ 등 4점 전시... 차대통령, 한국 젊은 예술가 소개

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60년 파트너십과 공동 번영’(60 YEARS OF PARTNERSHIP AND SHARED PROSPERITY-ENCOUNTER)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 이씨는 젊은 미디어 아티스트 류호열, 문경원, 양민하, 최서우씨 등과 함께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고(故) 백남준(1932~2006) 선생 탄생 80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부터 스미소니언 미술관에서 ‘백남준:글로벌 비저너리’(Global Visionary)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특별전과 연계해 기획했다. 박 대통령도 최근 미국 동포 간담회에서 “비디오를 발명한 나라는 미국이고, 그것을 가정에 보급시킨 나라는 일본이지만 비디오로 예술 작

품을 만들어낸 나라는 한국이며 백남준 선생님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소니언 미술관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이루는 19개 구성체 중 하나로 순수예술작품들이 전시돼 있는 곳이다. 이 미술관은 지난 2006년부터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의 ‘전자 고속도로:미 대륙, 알래스카, 하와이, 1995’와 ‘메가트론 매트릭스’ 등을 전시중이며, 지난 2009년에는 백 백백의 기록물 등을 보관하는 아카이브를 마련하기도 했다. 전시를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은 “비디오 아트를 창시하는 등 새로운 예술, 새로운 삶의 형태를 상상하고

실현한 백남준 선생의 예술정신을 이어갈 한국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씨는 김홍도의 ‘묵죽도’를 살아 움직이게 한 ‘신 묵죽도’, 겸재 정선의 ‘장안연월’과 세잔의 ‘생 빅투와르 산’을 조화시킨 ‘겸재와 세잔의 만남’, 김경희의 ‘세한도’를 디지털로 재해석한 ‘신 세한도’, ‘달항아리 풍경’ 등 4점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예술과 과학기술 등 이질적인 요소들을 통합시키고 시대를 앞서간 ‘융합’의 예술가 백남준 선생을 오마주한 작품들이다. 이씨는 지난 2월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선보인 ‘굿나



‘달 항아리 풍경’

잇 아날로그, 굿모닝 디지털’ 전에서 뒤샹의 소변기 ‘샘’과 구형 아날로그 TV를 매치시켜 놓은 ‘뒤샹 VS 백남준’ 등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이씨는 “백남준 선생님은 동서양을 넘나드는 광대한 비전과 상상력으로 비디오라는 새로운 매체를 예

술의 영역으로 이끌어온 작가”라며 “백남준 선생님과 함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한편 만찬에서는 전시와 함께 손열음씨와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씨도 연주도 예정돼 있다. /김경원기자 kki@kwangju.co.kr

‘나무 심는 사람들’ 몽골사막에 희망나무

강기정 등 여의의원 6명, 그린벨트 조림사업 참여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나무 심는 사람들’(대표의원 강기정)이 세계사막화방지의 날(6월14일)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황사 근원지인 몽골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에는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김현·박완주·김윤덕·신성범·이원욱 의원 등 국회의원 6명과 고병석 열린사회 이사장, 이세중 환경재단 이사장, 산림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또한, 광주지역의 ‘나무 심는 사람들’ 일반 회원 30여 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산림청이 ODA(공적외조)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지 내인 퉁수 조림지에 포플러 나무 800그루를 심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활동 및 식수원 개발 사업·태양열 전등 전달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몽골 국회의원들과 사막화 방

지 및 양국 국회의원 간 교류 협력 등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막화 방지를 위한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오는 2016년까지 진행되며, 세부사업으로는 양묘장 조성 및 3000ha면적의 조림사업, 연수생 교육훈련, 공동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그동안 양묘장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1198ha에 조림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올해에만 300ha에 조림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은 황사피해 저감 및 우리나라가 녹색 성공국으로서의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대구공고 홈페이지 ‘전두환은 민주화 초석’

누리꾼 “반민주주의자를 민주주의자로 둔갑” 격양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교인 대구공업고등학교가 홈페이지 동문마당에 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발전의 초석’으로 소개해 누리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대구공업고등학교는 이달 초까지 학교 홈페이지 동문마당 ‘모교를 빛낸 동문’란에 전 전 대통령 인적사항과 치적을 자세히 나열했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일으킨 12·12 군사반란이나 계엄군 진압으로 7000여명의 희생자를 낳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파오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홈페이지에는 ‘역대 대통령 누구도 실현하지 못한 ‘단일제의 실현’을 들 수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 민주화에 불멸의 초석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전 전 대통령을 소

개했다. 누리꾼들은 “반민주주의자를 민주주의자로 둔갑시키다니”, “어이없다”, “군부 독재자일 뿐이다”는 등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뒤 ‘동문마당의 경우 동문회가 운영해 학교 측과는 관련이 없다’고 공지했다. 강태봉 대구공업고등학교 교감은 “교장 선생님과 저는 올해 부임해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 지 이제 알았다”며 “어련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지우고 전 전 대통령의 실적 위주로 내용을 바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인시장 ‘천원짜리 착한밥상’ 다시 차려요

‘해뜨는 식당’ 김선자씨 암투병 영업 중단

광주신세계 적극 지원 ‘할머니 뜻 이을 것’

7일 오전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의 한 식당 앞. 20여명의 젊은이들이 식당을 드나들며 분주한 일상을 놀리고 있다. 각종 집기를 옮기고 내부를 정리·정돈하는가 하면 배선을 수리하고 청소를 하며 땀을 흘리는 모습이 리모델링 공사를 방불케 했다. 광주신세계가 주인의 암투병으로 영업중단 위기에 놓인 1000원에 백반을 파는 대인시장 내 ‘해뜨는 식당’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광주신세계는 ‘착한 식당’을 운영해온 김선자(71) 할머니가 병마(대장암)로 인해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다는 딱한 사정을 접하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푸짐한 밥상을 차려냈던 김 할머니의 식당 운영 취지를 살려,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한 것이다. 광주신세계 임직원들은 이날 식당 내부에 있는 각종 쓰레기 폐기물들을 분리수거하고, 집기류를 정

비·점검하는 등 식당이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노미혜(여·52)씨는 “김 할머니의 딱한 소식을 접했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와서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니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도 봉사활동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식당을 찾은 광주신세계 임직원들을 반갑게 맞았다. 김 할머니는 “아들 딸 같은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주니 고마움에 눈물이 난다”며 “건강을 회복해 식당을 다시 운영했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하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광주신세계측은 일단 식당 시설 개선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도록 돕고,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김 할머니와 협의해 특정 운영자를 정한 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후원



7일 오전 광주신세계 임직원들이 대인시장 내 ‘해뜨는 식당’을 찾아 영업 재개를 위한 정리·정돈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신세계 한 관계자는 “김 할머니의 건강상태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식

당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정규직 사원모집

당사는 광주 삼성전자(주) 중, 대형 금형 수정/제작 전문 1차 협력업체로서, 2013년 물량증가 및 사세확장으로 인한 (광주 첨단2단지 내) 현지 공장 신설로 인하여, 참신하며 책임감 있으며, 근면 성실한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인원	자 격 요 건
금형사상 (조립/분해)	00명	- 초보 가능 / 관련 직종 경력자 우대 - 사출금형 (중/대형) 유경험자 우대
CAD/CAM	00명	- 학력 : 무관
CNC M/C	0명	- 나이 : 21~45세 이하(군필 및 이에 준하는 신분)
CNC 방전	0명	- 관련부문 자격증소지자 우대
와이어커팅	0명	- UG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CAD/CAM)
사 출	0명	-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3차원 측정	0명	- 식당 / 청소 : 나이제한 없음
식당/청소	0명	사내식당 유경험자 사내청소 경험우대/초보가능

● 근무지 : 광주 첨단2단지 내
● 기간 : 총원시 까지
● 급여 : 면접후 결정
● 구비서류 : 1) 이력서 1통
2) 사진 2매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건강진단서 1통
5) 관련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복지혜택
- 4대보험, 상여금(300%), 퇴직금, 기숙사, 근속수당, 성과급 인센티브
- 사내식당(조, 중, 석, 야식제공), 생일축하금, 명절선물, 월회식비지급
- 연/월차,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전형방법
- 전화 후 회사방문(매주 목, 금요일 14시 정기 면접) / 구비서류 지참
- FAX 및 E-mail 접수가능(yoool@naver.com)

(주) 신 흥 정 밀
TEL. 054-473-6697 FAX. 054-473-6698 H.P. 010-6309-2488

사원모집 공고

창사 61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사가 참신한 일꾼을 널리 구합니다. 신문과 방송, 모바일이 어우러진 본격적인 융합미디어 체제를 갖춘 광주일보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모집대상**
가. 모집부문 : 광고영업직(남 0명, 여 0명)
● 최종합격자에게 회사 규정에 의한 직위 부여
나. 전형방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면접
다. 자격 및 대상
(1)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각종 영업부문 경력자 우대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제출서류**
가. 이력서 1통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 전형일정**
가. 서류접수 : 2013. 5. 8(수) ~ 5. 20(월) 방문 또는 우편접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5. 22(수) 개별통보
다. 면 접 : 2013. 5. 24(금)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5. 27(월)
- 서류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무등빌딩 16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본부 ☎ 220-0514 우. 501-711
*우편접수는 2013. 5. 20(월) 소인분까지 유효함.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1 광주일보사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태양광 R.P.S.사업부

“햇빛 재테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 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인증서 판매가격: 입찰을통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자부담 550 ~680만원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cnn할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주)셈에너지 **그린파워**
광주 총판 TEL. 1577-8905 019-624-2371
광주광역시 서구 신안동 149-31F